**【출애굽기9장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앙 중에라도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는 뜻이 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 길이 있는데 듣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깍아자른 듯한 절벽에서 걸어라 하실 때 걷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사고의 틀이 세상과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백성을 단 한 차례도 굶거나 헐벗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모험입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잣대로 해석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그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덮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에 서서 절대 순종으로 나가는 아가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